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우분투(Ubuntu)”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코사족과 쥘루족 등 수 백 개의 부족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어느 카페에서 공개한 말인데 이에 얽힌 자연이 감동적이어서 여기 소개해 본다. 서양의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마을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 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뛰어 가서 거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이라고 외쳤다. 음식을 놓고 아이들에게 경쟁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가 기대한 것처럼 서로 뛰어가면서 경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서 그 음식을 나무에서 내려다 함께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중 한명이 먼저 가면 그 먼저 간 사람이 음식을 다 차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두 같이 갔지?” 라고 묻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플데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 할 수 있나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내가 있어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 “함께 있어 내가 있다(I am because we are)”라는 뜻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뜻이 깊고 우주의 철리(哲理)를 담고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모두 서로가 한 뿌리로 얽히고 맞대어 있어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우분투’ 이 말을 쓰는 많은 부족들은 언제나 서로 만날 때면 인사말로 이를 쓴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은 나 한사람 행복을 위해서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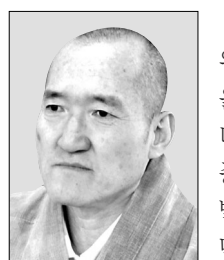
사람의 행복을 용인 하지 않는다. 위의 아이들 예에서 보듯이 적더라도 다 같이 고된 행복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에 음식을 걸어 놓고,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보자. 과연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로 먼저 독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쳐가며 피나는 경쟁을 벌일 것이고, 마침내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을 독식하려 들 것이다. 바로 어른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에게 불행을 조래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사회다. 무한경쟁의 현대사회는 정말로 불행의 사회다. 우분투는 공생의식(共生意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공생의식은 우리가 다 같이 연기(緣起)의 존재임을 깨우칠 때,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연기란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준말로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없어 지므로 저것이 없어진다(此滅故彼滅)”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약해 말하면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다’ ‘이것이 있어 저 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자연이 있어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어 자연이 있다’ 와 같은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그물의 망(網)처럼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지 않는다. “내가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는 바로 이처럼 나와 내가 둘 아닌(不二) 존재임을 깨우친다. 우리도 ‘우분투(Ubuntu)’ 운동을 일으켜 보자.

의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처

뼈를 깎는 참회로 중앙종회 이끌어야



범승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원을 구성하기 위한 첫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제 16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출범하였다. 온갖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성찰과 참회보다는 편법과 탈이 더 많았던 종회의원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중단 고위급도 지적한 바, 조계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단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정비하며 각각의 시스템이 활발히 기능하도록 그 환경을 여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종회의원은 종단운영의 틀을 만드는 책임의 주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살펴보건대, 한국불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동안 이웃종교들은 조직화, 대중화, 현대화를 세련되게 추진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에 확장의 폭을 넓혀서 이미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일대 유신을 단행해야 함에도 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단상

낮고 어려운 곳에서 울리는 목탁소리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넘었다. 그 사이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됐고, 관련 해결과 유병연 일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 됐으며 실종자 가족이 세월호 수색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족들은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4월 16일, 대한민국 시간은 세월호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나 뿐일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알맹이 빠진 특별법만 제정되고, 세월호 유사 사건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교훈, 반성, 안전이 정지된 대한민국 호가 되어버렸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말하지만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논 하듯 불교 역시 세월호를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 돌아가신 이의 영혼과 극락왕생만 여주는 불교에서 잘못된 구조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에 빠진 분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불교로 바뀌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꾸짖고 바로 잡으려는 살아 있는 불교로 거듭날 것이며, 약자를 누르는 제도와 힘에 대해 종교적 신앙에 근거해 맞설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자본주의를 빼달아가는 불교,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미래가 없다. 수행과 포교는 따로 있지 않다. 신자 없는 수행, 포교도 있을 수 없다. 불교는 이제라도 대중의 고훘 덩어리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울고 삶의 고단함을 들어주는 동사설 포교를 펼쳐야 한다. 스님들의 목탁소리는 산속에서도 들려야 하지만 세월호 광장, 비정규직 노동자 철물 농성장,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민권의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들려야 한다. 선방의 죽비 소리 역시 가난하기에 속절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못 민초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질 때, 그때야말로 떠났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릴 것이다.

社說

인력 양성 없이 템플스테이 발전 없다

템플스테이는 21세기 한국불교가 보여준 문화 콘텐츠 중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아이템이다.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도법사 스님들의 노력도 있지만 실무를 보며 진행되는 전문 인력의 노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무 전문 인력들의 근무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 조기동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불교학연구 제40호>에 게재한 논문 따르면 일선 실무 인력의 이직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2012 템플스테이 환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112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특히 6개월 미만 근무 인력이 32%(35명)에 달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넉넉지 못한 사찰 살림과 열악한 근무 조건이 이직 이유의 1순위로 꼽히지만, 예상외로 대상자들은 ‘인간관계’를 이직의 이유로 꼽았다. 조 교수의 설문은 진행된 인력은 “사찰

특성상 스님들과 일할 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재가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재가 종무원들의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복리후생이 좋은 것도 아니다. “주요 템플스테이 주말에 있으니까 주중에 쉬게 되는데 주중에도 사중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 전문 인력의 토로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흔히 사찰에서 일하는 재가자들에게는 신심과 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신심과 봉사 정신이 바탕돼야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 회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은 내외국인들을 상대하는 특화된 전문 인력들이다. 인력 양성 없는 템플스테이의 불교의 발전은 없다.

한중일 불교, 평화 실천의 중심되길

도라산 전망대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다. 송악산 OP(Observation Post; 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이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1987년 1월부터이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악산·금암골(협동농장)·장단역·북한선전마을 기정동·김일성 동상 등이 바라다 보인다. 이 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으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광을 원하면 파주시의 ‘DMZ 안보연계점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린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중일 불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중 메인 행사는 19일이다. ‘불교 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을 주제로 서울 그랜드호텔서 세미나를 연 뒤 파주 도라산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오전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각 국 역사 속에 담긴 평화사상과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오후에는 도라산전망대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열고 있다. 이 나라들은 아시아 아니 세계 불교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단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얻어낸 결실인 공동선언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시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 주 전 남 지 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